

2026년 8월 11일

Hana FX Daily Letter

원화 강세에 가려졌던 대외 리스크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유가 급등 여파 속 위험회피 심리와 강달러에 상승

daily range 예상: 1,412~1,423원

■ 미국과 이란이 서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을 둘러싼 대치 국면 속에 합의 기대감이 크게 약화됨.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었음. 여기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연준 인사의 금리인상 지지 발언이 겹치며 달러 강세를 자극. 이와 함께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 금일 환율의 상승 압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다만, 상단에서는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도물량이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 폭은 일정 수준 제한될 전망

■ 전일 동향 : 10일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대비 8.8원 오른 1,418.3원 마감. 장 초반, 미 비농업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 여파로 1,408.8원까지 하락. 그러나 저가 매수세 유입 및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에 오름세로 돌아서며 1,418.2원에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엔화 약세와 유가 급등 영향으로 1,410원대 후반에서 주로 등락을 거듭하다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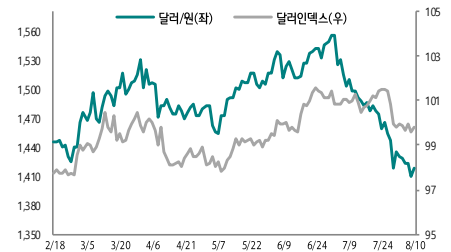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며 달러는 강세로 전환
- (유로-달러) 중동발 불확실성으로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자, 유로존 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불안 속에 유로화 약세 흐름이 이어짐
- (달러-엔) BOJ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과 중동발 유가 상승 등 약세 재료가 겹치면서 엔화는 다시 159엔대로 진입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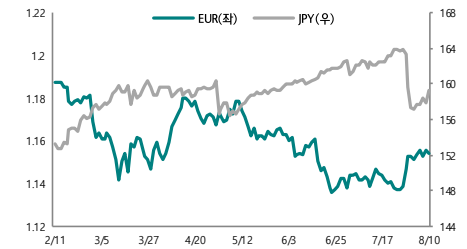
■ 지난달 초 재차 연고점에 근접했던 원화 환율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1,500원 중반대에서 1,4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음. 이번 하락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달러 공급에 따른 수급 여건 개선으로 판단됨. 이를 계기로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수출업체들의 매도 물량이 적극 출회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국내 증시에서 대거 이탈하던 외국인 자금의 유출 양상이 다소 주춤해진 점도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을 한층 덜어주었음. 최근 타 통화 대비 원화가 유독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수급 개선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여기에 미-일 당국의 엔저 대응 기조로 엔화 약세 부담 완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에 따른 유가 안정과 미 비농업 고용 부진에 따른 연준 긴축 우려 조정 등 단기 대외 여건도 원화 강세를 지지했음. 다만, 환율이 현 수준에서 다소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임. 주요 업체의 대규모 달러 공급 영향은 일정 시점이 되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연준 통화정책 경로나 중동 전쟁 등 대외 리스크가 해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그럼에도 한은의 매파적 기조와 국내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등 단단한 펀더멘털이 하반기 원화 가치를 지지해 줄 전망. 따라서 중단기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점진적 원화 강세 흐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13.0	1,420.0	1,408.8	1,417.1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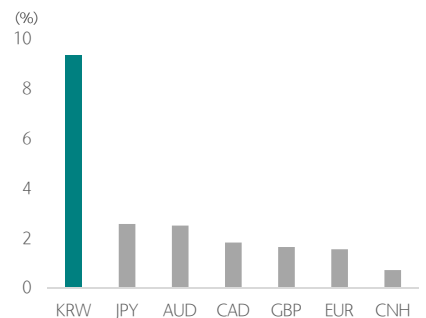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43	159.25	6.7459
전일대비	-0.0016	+1.43	+0.0028
재정환율	1,639.67	891.97	210.57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3:30	호주 RBA 금리 결정	4.35%	4.35%
23:00	미국 7월 기준주택매매	4.05m	4.09m

주요 통화별 달러 대비 절상률 비교



주: 26.07.01 대비
자료: 인포맥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